

RESEARCH ARTICLE

The importance of pilgrimage to the Sambo temples: Focusing on media articles

Shin, Banghyun (Ven. Dobong)

Abbot, Wonjeokjeongsa Temple, Seongnam, Republic of Korea

삼보사찰 순례의 중요성: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신방현(도봉)

원적정사 주지

Corresponding Author: Shin, Banghyun (dobong1972@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cally review articles related to 'Sambo Temple Pilgrimage' published in Korea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Sambo Temple Pilgrimage as revealed in the media. To this end, 47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21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method of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ewspapers that published articles related to Sambo Temple Pilgrimage, it was found that many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Modern Buddhist Newspaper'. In addition,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topics of the articles based on the titles of the articles and the summary of the articles by the research team of this study, 'The meaning and value of Sambo Temple Pilgrimage' and 'Interviews with people related to Sambo Temple Pilgrimage' were the most comm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requency of core keywords in articles related to the Sambo Temple pilgrimage, 'Sambo Temple Thousand-mile Pilgrimage' was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Buddhist Revival', 'Sangwolgyeolsa', and 'Pilgrimage'.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discussions on the importance of the Sambo Temple pilgrimage revealed in the media were presented.

Keywords: Sambo Temple, pilgrimage, Buddhist revival, Sangwolgyeolsa, press articles



OPEN ACCESS

Citation: Shin, Banghyun. The importance of pilgrimage to the Sambo temples: Focusing on media articles.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4, 59-70.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5.34.5>

Received: August 21, 2025

Revised: August 27, 2025

Accepted: August 27, 2025

Copyright: © 2025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한국 불교에는 세 가지 보배 즉,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가리키는 삼보사찰(三寶寺刹)이 있다. 경남 양산의 통도사, 경남 합천의 해인사, 그리고 전남 순천의 송광사가 그곳이다.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있는 불보사찰(佛寶寺刹), 해인사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의 경판이 모셔져있는 법보사찰(法寶寺刹), 그리고 송광사는 한국불교의 승맥(僧脈)을 잇고 있는 승보사찰(僧寶寺刹)이다.

삼보(범어 ratna-traya, 파리어 ratana-ttaya)는 세 종류의 진귀한 보배, 또는 세 가지 존귀한 보배라는 의미이다. 첫째는 부처님의 불,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셋째는 승가의 스님으로 승이다. 즉 불보, 법보, 승보이다(최경만, 2017). 다음은 삼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내용이다.

표 1. 삼보의 사전적 의미

1	『과거현재인과경』 3권	불 아래한을 불보라고 하며, 4성제의 법륜을 법보라고 하고 5아라한(오비구)을 승보라고 한다.
2	『증일아함경』 제48 예3보품(禮三寶品)	여래의 성종은 능히 삼보에게 합장해야 하며, 불, 법, 성종을 생각해야 한다.
3	『관무량수경』	불의 이름, 법의 이름을 듣고 승의 이름을 들을 것, 삼보의 이름을 들으면 바로 왕생할 수 있다. 불은 불교의 교주로서 일체지인이며, 법은 부처님이 설한 교법을 말하며, 승이란 그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모든 불제자들을 일컫는다
4	『성실론』 제1구족품	불을 자연인이라고 하면서 일체중지로서 일체법의 차별법을 알아서 일체의 선하지 않은 것을 떠나고 일체의 선을 구하고 모아서 일체중생에게이익을 준다. 그래서 불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름하여 법이라고 하며 이 법을 행하는 자를 승이라고 한다
5	『구경일승보승론』 제2	6 종류의 뜻 1. 삼보란 백천만겁을 지나서도 무성근의 중생으로 능히 태어나지 않으며 세간의 보배와 같다고 해서 보라고 이름 한. 2. 삼보는 일체의 유루법(有漏法)을 멀리하고 무구명정(無垢明淨)하기 때문에 세간의 보배와 같다고 해서 보라고 한다. 3. 삼보는 육통 불가사의 위덕 자체를 구족하였기 때문에 이 세력의 위덕이 세간의 보배와 같다고 해서 보라고 한다. 4. 삼보는 능히 출세간을 장엄하기 때문에 세간의 보배로 장엄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보라고 한다. 5. 삼보는 출세간의법으로서 최상승 묘용이 됨으로 세간의 보배와 같다고 하여 보라고 한다. 6. 삼보는 무루법(無漏法)으로서 세간의 8법(八法)에 동요하지 않고 변하지 않음으로 세간의 보배에 비유하여 보라고 이름 한다.
6	『대승법원주림장』 제6본	4종류의 뜻 1. 외도의 삿된 삼보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2. 불은 조어장부이며 법은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승은 그 스승인 부처님의 자격이 되려는 자이다. 3. 상근기의 사람들은 불보리를 얻기 때문에 불보라고 말하고 중근기의 사람은 자연의지의 인연을 법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보라고 말하고 하근기의 사람은 스승에 의하여 법을 얻어 이(利)사(事)에 통달하므로 승보라고 한다. 4. 불은 좋은 의사와 같고 법은 좋은 약과 같고 승은 간병인과 같다. 이 삼보는 삼으로서 멸(滅)하지도 않고 증(增)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7	『잡아비담심론』 제10	제불소득(諸佛所得)의 무학법에 귀의하면 귀의불이고 열반 무상법에 귀의하면 귀의법이고 승의 무학무법에 귀의하면 귀의승이라 한다

출처: 최경만 (2017). 삼보와 승보공양의 소고(小考). 정토학연구, 27, 9-42.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귀의하는 중생은 두려움, 공포, 불안 등이 없으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삼보품은 “첫째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면 그것은 가장 높아 위가 없으며 다음으로 그 법을 받들어 섬기면 탐욕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고 거룩한 무리를 공경히 받들면 그것은 가장 좋은 복받이니라. 그런 사람은 첫째가는 지혜 있어 그 누구보다 복을 먼저 만나니 만일 그가 천상이나 인간에 나면 그들 속에서 바른 길잡이 되리라. 그리고 가장 묘한 자리를 얻어 저절로 저 단 이슬 먹게 되나니 몸에는 일곱 가지 보배 옷 입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느니라. 가장 완전히 계울 갖추어 모든 감각은 이지러짐이 없고 그리고 지혜의 바다를 얻어 열반 세계로 차츰나아가나니. 이 세 가지 귀의를

갖춘 사람 나아가는 그 길도 어렵지않네.” 그 때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증일아함경』, 三寶品 第二十一 (大正藏2, .601,c-602,b)).

통도사는 선덕여왕 15년(646)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던 중에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금강계단에 봉안하고 있다. 통도사라는 사명(寺名)은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모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하며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통도사는 해마다 개산대제, 화엄산림법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한국불교의 맥을 잇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통도사, 2025).

해인사는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자 팔만대장경을 모신 사찰로서 한국인의 정신적인 귀의처이다. 해인사는 신라시대에 화엄종의 정신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선양한다는 가치 아래, 이른 바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세워진 가람이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화엄경에 해인삼매(海印三昧)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해인사라는 이름은 바로 이 ‘해인삼매’에서 비롯되었다. 해인사를 중심으로 화엄종은 신라시대를 거쳐, 희랑(希朗)대사를 위시하여 균여(均如), 의천(義天)과 같은 빼어난 학승들을 배출하였다(해인사, 2025).

송광사(松廣寺)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 북쪽 기슭에 자리잡은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이다. 송광사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전 고려 때 보조 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스님께서 정혜결사를 통해 당시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잡아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한 근본도량(根本道場)이다. 또한 송광사는 지눌 스님의 뒤를 이어 열다섯명의 국사들이 출현하였으며, 모두 열여섯명의 국사(十六國師)가 나와 한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황인규(2013)는 조선 후기 이후 불교계는 불교중흥을 위하여 삼보사찰을 지정하였으며 이는 서양 문화의 유입에 따른 불교계의 위기의식에서 불교계를 중흥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상월선원 만행결사단이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 이르는 423km 거리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실시하였다. 순례단은 삼보사찰 뿐만 아니라 순례길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들을 순례했다. 실제로, 삼보사찰 순례단은 통도사에 이르기 전에 약사여래 기도도량으로 알려진 사성암, 통일신라 화엄십찰 중 하나인 화엄사, 신라고찰 천은사, 신라 구산선문 중 처음으로 문을 연 사찰인 실상사,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의 진영을 모신 표충사를 순례하였다(김현태, 2021).

오늘날과 같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은 중요하다(김방룡, 2013). 실제로,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종교인구 감소 및 출가자 급감 등의 위기에 직면한 불교가 중흥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직접 움직여야 한다’,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동시에 불교의 정체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단적인 상징이다’, ‘불교적 의미가 더해진 걷기는 구도행이자 전법행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셨고, 깨달음을 이루신 후 법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걸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길을 떠나라고 당부하셨다’, ‘걷는다는 행위로 표현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동참과 실천, 그리고 삼보와 사부대중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삼보사찰 순례의 동기는 한국불교 중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남수연,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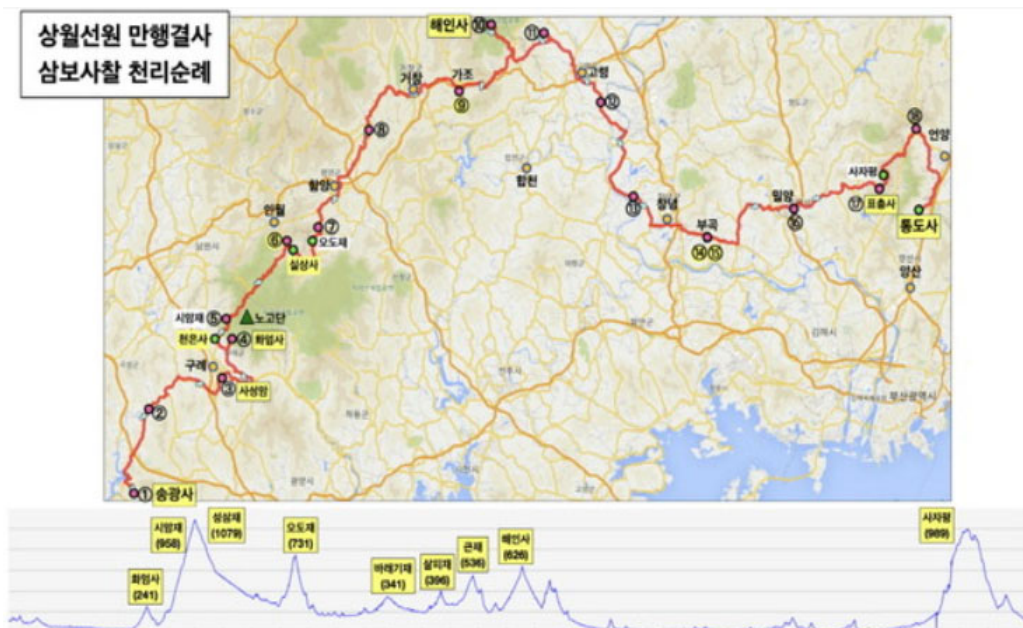


그림 1.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김현태, 2021)

순례란 사전적인 의미로 ‘외국인 혹은 나그네, 신성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의 여행’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펠리그리누스’에서 파생되었다. 종교적 의미로 순례는 신성이 깃든 곳을 찾아가 기도하고 감사의 행위를 올리는 것으로 정의되며 어느 종교에만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박승민, 2017). 또한, 순례는 거룩함을 찾기 위한 여행이며 시련을 통해 순례지에 도달하고 이후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정이다(이호경, 안운경, 2022). 순례지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과 관련된 장소이다. 불교는 붓다의 탄생지인 룸비니, 성도지인 보드가야, 최초의 설법지인 사르나트, 그리고 열반지인 쿠시나가르를 4대 성지로 꼽고 있다. 김용표(2010)는 이러한 성지에서 인간은 종교적 의례를 행하며 새로운 종교적 삶의 탄생을 체험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례는 그 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와 문화를 알게 하고(김자현, 2023; 박용진, 2023),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비추어보는 것이 가능하며(박승민, 2017), 순례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게 된다(백규리, 이계희, 2021; 한진욱, 김성태, 2021).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고통이나 역경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이는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노력을 동반하는 일이며 주변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의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채선화, 김진숙, 2020). 실제로, 육조혜능대사의 발걸음을 따라 광효사, 남화선사, 동화선사, 대왕사, 육조사, 국은사로 이어지는 순례길에 참여한 순례자들은 자신에게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타인에게는 감사함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도반들과 정진하는 경험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임, 2024). 불법승 삼보를 상징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한 삼보사찰 순례지는 지금도 스님들이 거주하며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순례길에서 불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신심을 높이고 불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남수연, 2021).

최근 순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순례의 동기, 순례지의 성격과 유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김진욱, 김영아, 김현지, 2022; 김진욱, 서혜승, 김송이, 2023), 순례의 중요성과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보사찰 순례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사순례의 중요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고자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치유의 길,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삼보사찰 천리순례길이 치유와 자아의 길을 넘어 불법승(佛法僧) 삼보를 기반으로 한 지혜와 자비,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체계적 고찰 방법을 통해 삼보사찰 순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발간 특성(발간일, 기사의 주제)은 어떠한가? 둘째,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어떠한가? 이를 통해 언론에 드러난 삼보사찰 순례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에서 발간된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들이다. 국내에서 발간된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위하여 2021년 주요 불교 신문사에 발간된 기사 전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상원결사III-삼보사찰 천리순례_삼보가 함께 나눈 천리길’에 실린 기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은 기사에서 주요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기 위해 코딩 매뉴얼을 엑셀로 제작하였다. 먼저 연구자 1인이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였고, 다른 연구자가 원문과 코딩 내용을 점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SPSS 2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시하고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핵심키워드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발간 특성

1) 전체 기사 정보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는 2021년 7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현대불교신문과 불교신문에 발간된 기사 총 47건이었다. 전체 기사의 발표일, 발간 신문사, 제목은 <표 3>과 같다.

표 3. 전체 기사의 정보

No	기사발표일	발간신문사	제목
1	2021.07.28	현대불교신문	상월선원 자비순례로 확산된 걷기(삼보사찰 순례 관련 내용 포함)
2	2021.07.28	현대불교신문	평등한 한 걸음, 능동적 동참과 실천 상징(삼보사찰 순례 관련 내용 포함)
3	2021.08.04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서 국보·보물급 문화재 친견한다
4	2021.08.04	현대불교신문	구례 사성암 구례 천은사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여정에 친견하는 성보문화재
5	2021.08.18	현대불교신문	불교종흥 기틀 마련하는 보살만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내용)
6	2021.08.18	현대불교신문	불법승 삼보사찰 천리순례(진제종정예하 법어)
7	2021.08.18	현대불교신문	종정 진제대종사 특별인터뷰(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내용)
8	2021.08.25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힘든 시기 국민·불자들에게 희망·용기 줄 것”(현봉스님특별인터뷰)
9	2021.09.01	현대불교신문	“걸음걸음에 정성 다하고 깨어있다면 천리순례는 최고 수행”(원각스님특별인터뷰)
10	2021.09.08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순례, 부처님 성지 참배하며 가르침 새기는 수승한 공부”(성파스님특별인터뷰)
11	2021.09.15	현대불교신문	자승스님(삼보사찰 천리순례 발원 관련 내용 포함)
12	2021.09.22	현대불교신문	삼보, 불교 신앙의 기본
13	2021.09.22	현대불교신문	순례, 신앙적 발걸음(삼보사찰 순례 관련 내용 포함)
14	2021.09.22	현대불교신문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15	2021.09.22	현대불교신문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 가는 순례사찰
16	2021.09.22	현대불교신문	술선해 화합하며 목표 향해 (삼보사찰 천리순례 참가 조장 인터뷰)
17	2021.09.29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고불문(정혜결사도량서)
18	2021.10.05	불교신문	총 423km 걸으며, 순례코스
19	2021.10.12	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기본으로 돌아가자”
20	2021.10.12	불교신문	자승스님, “복 짓는 기도 합시다,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라”
21	2021.10.12	불교신문	청매선사 깨달음 얻은 곳, 오도재를 넘다
22	2021.10.12	불교신문	“내게 이 여정은 보물 찾으러 떠나는 ‘수행의 길’”
23	2021.10.13	현대불교신문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외(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내용)
24	2021.10.19	불교신문	천리순례 공덕으로
25	2021.10.19	불교신문	한국불교 새 길 만든다는
26	2021.10.19	불교신문	달라지고 있는 포교 현장
27	2021.10.19	불교신문	사명감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하는
28	2021.10.19	불교신문	부처님의 법, 진리의 빛
29	2021.10.20	현대불교신문	승보·법보 거쳐 불보사찰로
30	2021.10.20	현대불교신문	전략적 포교로
31	2021.10.20	현대불교신문	팔만사천 법문 가슴에 새기고(삼보사찰 천리순례 진행 상황)
32	2021.10.20	현대불교신문	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에 머리 맞댔다(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토크콘서트)
33	2021.10.26	불교신문	대장정 회향 불교종흥 출발점
34	2021.10.26	불교신문	황금 물결 일렁이는
35	2021.10.26	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자회
36	2021.10.26	불교신문	걸어가는 길마다
37	2021.10.27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대장정 회향
38	2021.10.27	현대불교신문	신심으로 423Km 64만

39	2021.10.27	현대불교신문	‘佛法僧三寶’ 존귀함
40	2021.10.27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수행·전법 새 장 열었다
41	2021.10.27	현대불교신문	423km, 64만 발걸음(삼보사찰 천리순례 여정)
42	2021.10.27	현대불교신문	사부대중 결집 통한 불교중흥 (삼보사찰 천리순례 비구스님 자자)
43	2021.10.27	현대불교신문	억겁의 지중한 인연들 모였기에 ‘불교중흥’ 염원 반드시 실현될 것(삼보사찰 천리순례 마친 법보신문 대표 사회)
44	2021.11.02	불교신문	불교중흥 발원 특별선서화전 2일 개막
45	2021.11.02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순례체험기
46	2021.11.02	현대불교신문	“예수교인도 감응”...장엄한 순례 ‘환희삼’(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인용)
47	2021.11.02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에서 깨달은 부부의 길(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일 참가)

2) 발간 신문사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발간 신문사를 분석한 결과, ‘현대불교신문’에 발간된 기사가 32편(68.1%), ‘불교신문’에 발간된 기사가 15편(31.9%)이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기사 특성별 기사 편수 (단위: 편)

연구물 특성	편수	%
현대불교신문	32	68.1%
불교신문	15	31.9%
합계	47	100.0%

3) 기사 주제 및 내용

기사의 제목과 본 연구의 연구진이 기사를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주제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와 가치’와 ‘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인물과 인터뷰’가 각각 11편(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례 여정과 문화재 친견’이 7편(14.9%)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수행과 신앙적 실천’과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회향과 성과’가 각각 5편(10.6%), ‘순례 중 활동 및 특별 행사’와 ‘삼보사찰 순례 체험과 감응’이 각각 4편(8.5%)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주제별 기사 편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제별 기사 편수 (단위: 편)

기사의 주제	편수	%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와 가치	11	23.4%
순례 여정과 문화재 친견	7	14.9%
수행과 신앙적 실천	5	10.6%
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인물과 인터뷰	11	23.4%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회향과 성과	5	10.6%
순례 중 활동 및 특별 행사	4	8.5%
삼보사찰 순례 체험과 감응	4	8.5%
합계	47	100.0%

(1)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와 가치

“불교에서 걷기 수행과 순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자비순례가 교통 발달 시대에 스스로 부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능동적인 실천임을 설명함.” <상월선원 자비순례로 확산된 걷기 (2021. 07. 28, 현대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여정 중 겪었던 어려움과 그 속에서 피어난 도반들의 따뜻한 마음, 지역 주민들의 환대에 대한 내용임. 우중 행선과 추위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순례단의 모습, 창녕 주민들의 따뜻한 보시와 응원이 감동을 선사했음. 회향을 앞두고 자자회를 통해 참회와 불교 중흥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순례단의 모습도 소개되어 있음.” <삼보사찰 천리순례, 수행·전법 새 장 열었다 (2021. 10. 27,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여정을 따라 홍제사 방문, 밀양 지역 불자들의 환영 등 순례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풍경을 소개하고 있음.” <423km, 64만 발 걸음 (삼보사찰 천리순례 여정) (2021. 10. 27, 현대불교신문)>

“불(佛), 법(法), 승(僧) 삼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삼귀의가 불교 입문의 첫 관문임을 강조하며, 불교 사상의 구심화 작업이 삼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함.” <삼보, 불교 신앙의 기본 (2021. 09. 22, 현대불교신문)>

“불교 순례의 의미를 고찰하며, 삼보에 대한 귀의와 신심 형성의 근본임을 밝힘. 삼보사찰 순례가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삼귀의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효과적인 순례 코스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 <순례, 신앙적 발걸음 (2021. 09. 22, 현대불교신문)>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회사한 선서화를 중심으로 열리는 ‘불교중흥 발원 특별선서화전’에 대한 내용임. 전시회의 취지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격려, 전시 준비 상황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불교 단체에 회향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또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인사들이 거창을 방문하여 천리순례단을 격려한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음.” <천리순례 공덕으로 (2021. 10. 19, 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함양 지역을 지나는 순례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지원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음. 주유소 사장의 배려, 포교원과 다나의 발차 지원, 면장의 헌신적인 도움, 부상에도 불구하고 순례를 이어가는 스님들의 모습 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음. 순례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불교의 역할을 강조함.” <한국불교 새 길 만든다는 (2021. 10. 19, 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열린 ‘포교의 미래’ 대중공사에 대한 내용과 순례 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 김호준 전 스노보드 선수와 안현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의 인연, 어머니와 딸의 순례 동참 이야기 등이 소개되었음. 대중공사에서는 자승 스님의 불교 중흥에 대한 강조, 정문 스님과 범해 스님의 인사, 화엄사, 동림선원, 쿠무다의 포교 사례 발표 및 전략적 포교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달라지고 있는 포교 현장 (2021. 10. 19, 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해인사로 향하는 여정을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수행자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음. 빗속 행군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반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 지역 주민들의 응원, 해인사 도착 후의 감격 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음. 순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부처님의 법, 진리의 빛’ (2021. 10. 19, 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회향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내용임. 18일간의 고난 극복 과정과 순례를 통해 얻은 간절한 원력의 힘, 미래 한국불교에 희망을 심어준 발걸음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자승 스님의 리더십과 순례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회향의 감동을 불교 중흥의 불사로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대장정 회향 불교중흥 출발점 (2021. 10. 26, 불교신문)>

(2) 순례 여정과 문화재 친견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통해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에 있는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를 친견할 수 있음을 소개하며, 이는 한국 불교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임을 강조함.” <삼보사찰 천리순례서 국보·보물급 문화재 친견한다 (2021. 08. 04,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여정에서 친견할 수 있는 주요 성보문화재 (국보, 보물)들을 사찰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함.” <구례 사성암 구례 천은사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삼보사찰천리순례’여정에 친견하는 성보문화재 (2021. 08. 04, 현대불교신문)>

“불보종찰 통도사를 소개하며,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불법승 삼보의 존귀함을 알리고 승보(출가), 법보(수행), 불보(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함을 밝힘.”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1. 09. 22, 한국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출발지 송광사를 소개하며,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순례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됨.”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 가는 순례사찰 (2021. 09. 22, 한국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를 참배하고 지리산 오도재를 넘는 순례단의 고된 여정이 소개되어 있음.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원단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바세 그룹의 역할, 불교신문 노동조합 집행부의 일일 참가 소식 등이 담겨 있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아가는 순례단의 모습과 총도감 호산 스님의 감사 인사가 전해짐.” <청매선사 깨달음 얻은 곳, 오도재를 넘다 (2021. 10. 12, 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종반부로 향하며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순례 중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도움과 순례단의 마음으로 극복하고 있음이 담겨 있음.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주요 인사들이 1일 참가자로 참여했으며, 순례를 통해 부처님의 고행을 느끼고 도반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함. 사제 간의 끈끈한 정과 순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 <승보·법보 거쳐 불보사찰로 (2021. 10. 20, 현대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표충사에서 사자평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과 그 속에서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는 순례단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 아름다운 역세 평원을 행진하는 장관과 순례단의 굳건한 의지, 통도사 회향을 앞두고 느끼는 보람 등을 담고 있음.” <황금 물결 일렁이는 (2021. 10. 26, 불교신문)>

(3) 수행과 신앙적 실천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자비순례에서 천리순례로 이어짐을 설명하며, 걷기가 불교의 정제성과 가르침의 상징임을 강조. 삼보사찰을 순례지로 정한 이유가 사부대중의 신심을 고취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음.” <평등한 한 걸음, 능동적 동참과 실천 상징 (2021. 07. 28, 현대불교신문)>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삼보의 의미를 강조하며,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스스로 재발심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수행

문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인터뷰임.” <“걸음걸음에 정성 다하고 깨어있다면 천리순례는 최고 수행”(원각스님특별인터뷰) (2021. 09. 01, 현대불교신문)>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이 한국 불교의 삼보 신앙의 특징을 설명하고,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앉아서 하는 공부뿐 아니라 부처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수행임을 강조하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인터뷰임.” <“삼보사찰 순례, 부처님 성지 참배하며 가르침 새기는 수승한 공부”(성파 스님 인터뷰) (2021. 09. 08,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일상 수행 모습 (도량석, 오분향례, 칠정례, 반야심경 봉독, 공양게 등)을 소개하며, 걷는 여정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음.”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외 (2021. 10. 13,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해인사에서 법보를 친견하고 불보종찰 통도사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신심과 감동, 개인적인 변화 사례 등을 전하고 있음.” <팔만사천 법문 가슴에 새기고 (2021. 10. 20, 현대불교신문)>

(4) 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인물과 인터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보살만행으로 평가하며, 한국 불교의 만행 수행 전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을 전하고 있음.” <불법승 삼보사찰 천리순례 (진제종정 예하 법어) (2021. 08. 18, 현대불교신문)>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보살만행이자 한국 불교 역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만행 대중의 화합과 수행을 강조하는 인터뷰임.” <종정 진제대종사 특별인터뷰 (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내용) (2021. 08. 18, 현대불교신문)>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시작된 만행결사가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이어지는 배경을 설명하며, 이는 침체된 불교를 일으키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전환하는 노력임을 강조하고 있음.” <자승 스님 (삼보사찰 천리순례 발원 관련) (2021. 08. 18, 현대불교신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보살만행으로 평가하며, 한국 불교의 만행 수행 전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을 전하고 있음.” <불교중흥 기틀 마련하는 보살만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내용), 2021. 08. 18,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참가하는 조장들의 포부와 기대를 담으며, 봉사, 삼보 신앙 확립, 새로운 불교 문화 창조, 개인 성찰 등의 목표를 밝히고 있음.” <술선해 화합하며 목표 향해 (삼보사찰 천리순례 참가 조장 인터뷰) (2021. 09. 22, 현대불교신문)>

“현봉 스님이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한국 불교의 결사 전통을 계승하는 불교 혁신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불교 중흥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 <“삼보사찰 천리순례, 힘든 시기 국민·불자들에게 희망·용기 줄 것”(현봉 스님 인터뷰) (2021. 08. 25, 현대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의 여정을 담은 기사임. 순례단이 곡성을 넘어 구례 화엄사로 향하는 길의 풍경과 어려움, 그 속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비구니 대한 스님의 인터뷰를 통해 삼보사찰 순례의 감격과 한국불교 대중의 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음.” <자승 스님, “복 짓는 기도 합시다,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라”(2021. 10. 12, 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참가한 한 스님의 개인적인 소회를 담고 있음. 불법승 삼보에 대한 깊은 귀의심과 순례를 통해 세 가지 보물을 찾아나서는 수행의 여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순례 중 만나는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한국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순례단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음.” <“내게 이 여정은 보물 찾으러 떠나는 ‘수행의 길’”(2021. 10. 12, 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원단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음. 행렬을 안내하는 외호대중 스님, 숙영팀장, 안전팀장, 의료팀장, 공양팀장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순례단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노고와 소감이 담겨 있음.” <사명감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하는 (2021. 10. 19, 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마지막 불보종찰 통도사 입성을 앞두고 열린 자자회 내용을 담고 있음. 순례 참가자들의 참회와 소감, 도반과의 끈끈한 정, 불교 중흥을 위한 결의 등이 소개되어 있음. 순례를 통해 삼보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전하고 있음.”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자회 (2021. 10. 26, 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법보사찰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 회향을 앞둔 순례단의 여정을 회주 자승 스님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음. 곳은 날씨 속에서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깨달음,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 순례를 통해 확인한 불자들의 신심과 불교 중흥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임.” <걸어가는 길마다 (2021. 10. 26, 불교신문)>

(5)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회향과 성과

“상월결사 삼보사찰 순례의 전체 코스(순천 송광사 출발~양산 통도사 회향)와 삼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 순례에 앞서 송광사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순례단의 발원과 종단 주요 인사들의 격려, 순례단의 여정 중 거치는 주요 사찰들의 의미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음.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전법과 포교의 길을 체험하겠다는 순례단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 <총 423km 걸으며, 순례코스 (2021. 10. 05, 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여정을 따라 홍제사 방문, 밀양 지역 불자들의 환영 등 순례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풍경을 소개하고 있음.” <삼보사찰 대장정 회향 (2021. 10. 27, 현대불교신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여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 순례 코스별 주요 지점(화엄사, 천은사, 시암재 등)에서의 상황과 순례단의 어려움(고갯길, 더위, 비 등)을 극복하는 과정이 담겨 있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인사들의 격려 방문과 안전 및 지원단의 노고가 소개되어 있음.”

음. 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순례단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 <신심으로 423Km 64만 발걸음 (2021. 10. 27,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한 비구 스님들의 자자(自恣, 수행 점점 및 반성) 내용을 전하며, 다음 순례에 대한 제안, 공양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사부대중 결집 통한 불교중흥(삼보사찰 천리순례 비구스님 자자) (2021. 10. 27,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한 법보신문 김형규 대표의 소회를 밝히며, 순례를 통해 얻은 감격과 깨달음, 회주 자승 스님에 대한 존경심, 불교 중흥에 대한 염원이 드러나 있음.” <억겁의 지중한 인연들 모였기에 ‘불교중흥’ 염원 반드시 실현될 것 (삼보사찰 천리순례 마친 법보신문 대표 소회) (2021. 10. 27, 현대불교신문)>

(6) 순례 중 활동 및 특별 행사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열린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의 풍경과, 동참 대중을 대표하여 낭독한 고불문의 내용을 전하며,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임.”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 고불문 (정혜결사 도량서) (2021. 09. 29,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기간 중 열린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의 길’ 토크콘서트 내용을 보도하며, 불교계 위기 극복과 미래 포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있음.” <사부대중, 한국 불교 위기 극복에 머리 맞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토크콘서트) (2021. 10. 20, 현대불교신문)>

“상월결사와 조계종 포교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천리순례 대중공사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의 길’에 대한 기사임. 자승 스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할 때 불교 중흥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으며, 범해 스님은 이날 대중공사를 ‘21세기 결집’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포교 현장의 사례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전략적 포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년 및 문화 포교 등 다양한 포교 방안이 논의됨. 순례에 동참한 스님과 재가자들의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음.” <전략적 포교로 (2021. 10. 20, 현대불교신문)>

“불교중흥을 발원하는 특별선서화전이 동국대에서 개막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임. 자승 스님이 기증한 선서화를 중심으로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판매 수익금은 교계 단체에 회향될 것임을 밝히고 있음.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인사들의 동참과 전시회 준비 상황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음.” <불교중흥 발원 특별선서화전 2일 개막 (2021. 11. 02, 불교신문)>

(7) 삼보사찰 순례 체험과 감응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순례 중 각 사찰을 찾아 보시하며 공덕을 쌓고, 발원문을 통해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내용임. 김호준 전 스노보드 선수의 참가 소감과 회주 자승 스님의 솔선수범, 순례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심을 키워가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소개되었음. 경기도 광주시의 천진암 가톨릭 성지 순례길 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문제 제기와 광주시의 사과 표명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실려 있음.”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기본으로 돌아가자” (2021. 10. 12, 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참여한 신도의 체험기를 통해 순례 과정에서 느낀 긴장감, 환희심, 참회, 발원, 원력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순례단의 일치와 불교 중흥의 염원을 강조하고 있음.” <삼보사찰 순례체험기 (2021. 11. 02,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장엄함과 감동을 표현한 인용문을 통해 순례가 종교를 초월하여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예수교인도 감응”...장엄한 순례 ‘환희심’ (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인용) (2021. 11. 02, 현대불교신문)>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일일 참가한 부부의 경험을 소개하며, 순례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사부대중의 화합된 모습에 대한 감동을 전달하는 내용임.” <성지순례에서 깨달은 부부의 길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일 참가) (2021. 11. 02, 현대불교신문)>

2.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핵심 키워드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이 기사별로 3개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22개(15.6%)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중흥’이 7개(5.0%)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월결사’, ‘순례’가 각각 4개(2.8%), ‘삼보사찰 순례’, ‘수행’이 각각 3개(2.1%), ‘만행결사’, ‘삼보’, ‘삼귀의’, ‘진제 대종사’, ‘통도사’가 각각 2개(1.4%)로 나타났다. 그 밖에는 빈도가 1개씩 나타난 키워드가 88개(62.4%) 나타났는데, 그 내용으로는 ‘포교’, ‘도반’, ‘성파 스님’, ‘송광사’, ‘불교사’, ‘불교 미래’ 등이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핵심 키워드 (중복)

키워드	개	%
삼보사찰 천리순례	22	15.6%
불교중흥	7	5.0%
상원결사	4	2.8%
순례	4	2.8%
삼보사찰 순례	3	2.1%
수행	3	2.1%
만행결사	2	1.4%
삼보	2	1.4%
삼귀의	2	1.4%
진제 대종사	2	1.4%
통도사	2	1.4%
기타(빈도가 1개씩 나타난 키워드)	88	63.1%
합계	47	100.0%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간된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언론에 드러난 삼보사찰 순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발간된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47개 기사를 선정하고 체계적 문헌 고찰의 방법을 차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발간 신문사를 분석한 결과, ‘현대불교신문’에 발간된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불교 언론에서 삼보사찰 순례를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은 순례가 단순한 종교적 수행을 넘어 불교의 현대적 실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기사의 제목과 본 연구의 연구진이 기사를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주제를 분류한 결과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와 가치’와 ‘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인물과 인터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순례 여정과 문화재 친견’이 많았으며, 그 뒤를 ‘수행과 신앙적 실천’과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회향과 성과’가 따랐다. 그 다음으로 ‘순례 중 활동 및 특별 행사’와 ‘삼보사찰 순례 체험과 감응’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삼보사찰 순례가 신앙적 수행뿐만 아니라 문화재 친견, 관련 인물 중심의 인터뷰, 순례의 의미 재조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순례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포괄하는 종합적 경험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순례 여정과 문화재 친견’ 및 ‘수행과 신앙적 실천’과 같은 주제의 빈도가 높았다는 점은 순례가 실행과 문화적 성찰을 아우르는 중요한 활동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핵심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가장 많았으며, ‘불교중흥’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보사찰 순례가 단순한 신앙적 실천을 넘어 불교의 중흥과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상원결사’, ‘순례’가, 그 뒤를 ‘삼보사찰 순례’, ‘수행’이, 그리고 다음 순위로 ‘만행결사’, ‘삼보’, ‘삼귀의’, ‘진제 대종사’, ‘통도사’가 나타났다. ‘상원결사’, ‘만행결사’ 등의 키워드는, 순례가 개인의 수행을 넘어 공동체적 실천과 결사 운동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는 빈도가 1개씩 나타난 키워드가 ‘포교’, ‘도반’, ‘성파 스님’, ‘송광사’, ‘불교사’, ‘불교 미래’ 등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키워드와 주제가 도출된 것은 각 기사가 삼보사찰 순례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간된 언론 기사를 체계적 문헌 고찰의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삼보사찰 순례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삼보사찰 순례의 종교적·문화적 가치의 초점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언론 기사에 담겨 있는 순례의 대중적 의미와 사회적 영역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삼보사찰 순례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간된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언론에 드러난 삼보사찰 순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47개 기사를 선정하여 체계적 문헌 고찰의 방법을 차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발간 신문사를 분석한 결과, ‘현대불교신문’에 발간된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사의 제목과 본 연구의 연구진이 기사를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주제를 분류한 결과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와 가치’와 ‘삼보사찰 천리순례 관련 인물과 인터뷰’가 가장 많았다. 둘째, 삼보사찰 순례와 관련된 기사의 핵심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가장 많았으며, ‘불교중흥’과 ‘상원결사’, ‘순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에 드러난 삼보사찰 순례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과 논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삼보사찰, 순례, 불교중흥, 상원결사, 언론 기사

참고문헌

- 經律異相 2, 한글대장경.
 增一阿含經 1, 한글대장경.
 阿毗達磨大毗婆沙論 2, 한글대장경.
 김방룡 (2013). 다문화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 문제.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9(1), 227-246.
 김용표 (2010). 세계의 중심사상과 성지순례: 종교현상학적 접근. 한국불교학, 57, 27-62.
 김자현 (2023). 금강산 순례에 관한 시대별 인식 변화 고찰: 불교성지의 관점에서. 동양문화연구, 39, 149-182.
 김진옥, 김영아, 김현지 (2022). 한국 천주교 성지의 순례동기가 성지만족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솔피성지 순례자를 대상으로. 호텔경영학연구, 31(8), 137-152.
 김진옥, 서혜승, 김송이 (2023). 서울순례길의 순례동기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순교가치와 순례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호텔경영학연구, 32(1), 179-197.
 김현태 (2021).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 천릿길 순례 대장정 펼쳐진다. 법보신문.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37> 인용: 2025년 3월 17일.
 남수연 (2021). 평등한 걸음, 능동적 동참과 실천 상징. 법보신문.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778> 인용: 2025년 3월 17일.
 박승민 (2017). 순례의 치유적 의미: 키미노 데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6, 51-73.
 박용진 (2023). 산티아고 순례를 통해서 본 중세의 순례문화. 이화사학연구, 67, 263-292.
 백규리 (2021). 종교관광 경험이 여행자의 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6), 23-38.
 상원결사 백서 편집위원회(2020). 상원결사III-삼보사찰 천리순례_삼보가 함께 나눈 천리길. 서울: 동국.
 송광사 (2025). <http://www.songgwangsa.org/>
 이호경, 안운경 (2022). 문학작품과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는 순례의 상징적 의미. 학교상담 및 모래놀이, 4(2), 107-117.
 채선화, 김진숙 (2020). 삶의 의미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39-468.
 최영임 (2024). 육조 혜능대사 성지순례를 통한 순례명상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명상심리상담, 32, 23-38.
 통도사 (2025). <https://tongdosa.or.kr/>
 한진옥, 김성태 (2021). 한국천주교 성지순례자의 영성적 웰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복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3), 3-23.
 해인사 (2025). <http://www.haeinsa.or.kr/>
 황인규 (2014). 한국 불교계 삼보사찰의 성립과 지정. 보조사상, 41, 247-284.